

# 江永방언 端, 透, 定 성모의 발음

모정열\*

---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江永방언 端, 透, 定 성모의 발음
  - III. 江永방언 端, 透, 定 성모의 발전 과정
  - IV. 맺는 말
- 

## I. 들어가는 말

江永은 湖南省의 한 縣이다. 江永縣은 湖南省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縣 내에는 城關鎮, 桃川鎮, 粗石江鎮, 城下鄉, 井邊鄉, 允山鄉, 上洞鄉, 上江圩鄉, 黃甲嶺鄉, 千家峒鄉, 廣子鋪鄉, 夏層鋪鄉, 冷水鋪鄉, 松柏瑤族鄉, 源口瑤族鄉, 清溪瑤族鄉, 蘭溪瑤族鄉, 高澤源林場, 銅山嶺農場, 回龍圩農場 등 20개의 鄉, 鎮, 農場이 있다. 江永縣 동북쪽은 道縣과 인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江華瑤族自治縣이 있다. 남쪽과 서쪽은 廣西省과 맞닿아 있다. 江永縣의 인구는 2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漢族이 11만, 소수민족이 11만 8천명으로 소수민족이 전체 주민의 51%를 차지한다. 소수민족 중에서는 瑤族이 11만 6천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壯族, 彝族, 黎族, 侗族, 苗族 등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江永縣은 이중방언 지역이다.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언을 구사한다. 대외적으로는 이 지역 통용어인 西南官話를 사용하고, 마을 단위나 집 안에서는 지역 토속어인 湘南土話를 사용한다. 漢族과 함께 생활하는 이 지역 瑤族들은 瑤語이외에도 西南官話와 湘南土話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sup>1)</sup> 湘南土話는 湖南省 남부 지역의

---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부교수.  
1) 黃雪貞 《江永方言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1-2.

오랜 토속어인데, 주로 東安, 雙牌, 新田, 寧遠, 道縣, 藍山, 江永, 江華, 資興, 永興, 桂東, 嘉禾, 桂陽, 臨武, 宜章, 汝城, 信道, 冷水灘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江永縣 토속어(이하 江永방언 혹은 湘南土話) 중에는 中古 端, 透, 定母字의 성모를 [l], [n], [ts], [tsʰ] 등으로 발음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漢語方言이라면 端, 透, 定母(이하 端組)는 각각 [t], [tʰ], [tʰ](혹은 [tʰ])로 발음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논저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 논문은 唐伶(2012)〈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唐伶(2012)에서는 江永방언을 비롯한 湘南土話 端組 성모의 [l], [n], [ts], [tsʰ] 발음은 古代로부터의 역사적 음운변화와는 관련성이 적고 주로 共時的 음운조건(운모의 발음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 江永방언 端組 성모를 언급한 논저는 黃雪貞(1993)《江永方言研究》, 劉祥友(2008)《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 등이 있는데, 黃雪貞(1993)에서는 일부 장절에서 이들 성모의 분포 특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劉祥友(2008)에서는 湘南土話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端組 성모의 [l], [n] 발음을 모두 나열한 후 간단한 추측성의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江永방언 端組성모의 발음과 古代漢語와의 관련성(端組 성모와 知組성모의 관계, 全濁聲母의 무성음화와 이들 성모 특징과의 관계, 陽聲韻 鼻音韻尾의 탈락이 이들 성모 발음에 미친 영향 등), 소수민족 언어와의 관계, 주변 강세방언의 영향, 同化, 弱化, 合流 등 共時的 음운조건에 의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성모의 형성 원인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기존의 논점보다 조금은 더 진일보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湘南土話 자료는 黃雪情(1993)《江永方言研究》, 沈若雲(1999)《宜章土話研究》, 張曉勤(1999)《寧遠平話研究》, 王淑一(2007)《湖南道縣仙子腳語音研究》 등 저서에

2) 湘南土話는 방언 자체의 성격이 일반적인 漢語方言과는 다른 아주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방언 내부의 지역적 편차도 커서 방언 전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漢語方言이다. 일부 학자들은 湘南土話를 古代와 現代의 여러 어음층이 혼재되어 있는 일종의 混合型方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湘南土話는 학술적인 입시 명칭으로 학계에서는 湘南土話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와 있는 ‘同音字表’와 劉祥友(2008)《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 唐伶(2005, 2012)《永州南部土話語音研究》〈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 賀凱林(2003)〈湖南道縣壽雁平話音系〉, 李星輝(2003)〈湖南永州崗角山土話音系〉, 羅昕如(2004)〈湖南藍山縣太平土話音系〉, 謝奇勇(2004)〈湖南新田南鄉土話同音字匯〉, 範峻軍(2000)〈湖南桂陽縣敖泉土話同音字彙〉, 周先義(1994)〈湖南道縣(小甲)土話同音字彙〉 등 논문 중에 나와 있는 예시를 활용하였다.

## II. 江永방언 端, 透, 定 성모의 발음

黃雪貞(1993)《江永方言研究》‘同音字表’에 의하면 江永城關방언 端, 透, 定母字의 성모는 현재 다음과 같이 발음된다.

端母: [ l ] 혹은 [ n ]  
 透母: [ t' ] 혹은 [ ts' ]  
 定母: [ t ] 혹은 [ ts ] 혹은 [ l ]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端母: 多ləu<sup>1</sup>, 對lie<sup>5</sup>, 島lau<sup>3</sup>, 斗lou<sup>3</sup>, 丹luou<sup>5</sup>, 顛ləŋ<sup>1</sup>, 等lai<sup>3</sup>, 滴lie<sup>7</sup>,  
 東lai<sup>1</sup>, 點nəŋ<sup>3</sup>, 典nəŋ<sup>3</sup>, 襠naŋ<sup>1</sup>, 得ni<sup>7</sup>/nu<sup>7</sup>/lu<sup>7</sup>  
 透母: 梯ti<sup>3</sup>, 透t'ou<sup>5</sup>, 添t'əŋ<sup>1</sup>, 湯t'aŋ<sup>1</sup>, 剔t'u<sup>7</sup>, 推ts'ie<sup>1</sup>, 腿ts'ie<sup>3</sup>, 蛻ts'i<sup>3</sup>,  
 懶ts'ø<sup>7</sup>, 脫ts'ie<sup>7</sup>, 聽ts'ioŋ<sup>5</sup>, 廳ts'ioŋ<sup>1</sup>  
 定母: 舵təu<sup>4</sup>, 道tau<sup>4</sup>, 田təŋ<sup>2</sup>, 騰tai<sup>2</sup>, 獨tu<sup>6</sup>, 條tsiu<sup>2</sup>, 跳ts'iu<sup>5</sup>, 蝶喋tsie<sup>5</sup>,  
 奪tsie<sup>6</sup>, 停亭庭庭t'ioŋ<sup>2</sup>, 艇挺t'ioŋ<sup>3</sup>, 定t'ioŋ<sup>6</sup>, 笛敵狄tsie<sup>6</sup>, 隊lie<sup>5</sup>,  
 兌lie<sup>5</sup>, 調音~liu<sup>5</sup>

3) 성조는 숫자로 표기하였다. 1은 陰平, 2는 陽平, 3은 上聲(만약 上聲이 陰上和 陽上으로 나누어진다면, 3은 陰上, 4는 陽上), 5는 去聲(만일 去聲이 陰去와 陽去로 나누어진다면, 5는 陰去, 6은 陽去), 7은 入聲(만일 入聲이 陰入과 陽入으로 나누어진다면, 7은 陰入, 8은 陽入)을 나타낸다. 江永城關방언의 성조체계는 다음과 같다. 陰平44, 陽平42, 陰上35, 陽上13, 陰去21, 陽去33, 入聲5.

江永城關방언의 端母는 현재 대부분 [l]성모로 발음된다. [n]성모로 발음되는 글자는 예시한 몇몇 글자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江永縣에 속한 기타 방언지역과 인근 江華縣에 속한 방언지역 그리고 嘉禾縣 및 道縣의 일부 지역에서도 端母는 대부분 [l]성모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江永桃川: 低lei<sup>1</sup>, 帶lia<sup>5</sup>, 答lo<sup>7</sup>  
 江永夏層鋪: 低lei<sup>1</sup>, 帶la<sup>5</sup>, 單lie<sup>1</sup>, 答lu<sup>7</sup>, 丁lion<sup>1</sup>, 頂lion<sup>3</sup>, 燈lie<sup>1</sup>, 凍lie<sup>5</sup>  
 嘉禾廣發: 都lu<sup>1</sup>, 帶lo<sup>5</sup>, 搭lə<sup>4</sup>, 單lom<sup>1</sup>, 墩lən<sup>1</sup>, 頂lin<sup>5</sup>  
 江華粟米塘: 堆lu<sup>1</sup>, 刀la<sup>1</sup>, 堤le<sup>1</sup>, 端laŋ<sup>1</sup>, 頓lyi<sup>5</sup>, 等liŋ<sup>3</sup>  
 江華寨山: 島lo<sup>3</sup>, 多le<sup>1</sup>, 帝loei<sup>5</sup>, 丹lan<sup>1</sup>, 燈laŋ<sup>1</sup>, 顛lien<sup>1</sup>  
 道縣仙子脚: 賭lo<sup>3</sup>, 戴li<sup>5</sup>, 低ləu<sup>1</sup>, 對luə<sup>5</sup>, 斗ləu<sup>3</sup>, 燈lie<sup>1</sup>

江永縣 내의 桃川, 蘭溪, 松柏, 夏層鋪, 江華縣 내의 沱江 등지에서는 현재 鼻音韻尾를 보유하고 있는 端母 陽聲韻 글자들의 경우 대부분 [n]성모로 발음된다.<sup>5)</sup> 江永夏層鋪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夏層鋪: 點nəŋ<sup>3</sup>, 擔noŋ<sup>1</sup>, 膽noŋ<sup>3</sup>, 單lie<sup>1</sup>, 端naŋ<sup>1</sup>, 黨naŋ<sup>3</sup>

透母와 定母는 江永방언을 비롯한 湘南土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각 무성 유기음 [t']와 무성 무기음 [t]로 발음된다. 그런데 定母의 경우는 위의 江永城關방언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소수의 글자들에서 [l]성모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端母를 [l]성모로 발음하는 기타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定母字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桃川: 隊lua<sup>5</sup>, 達lo<sup>7</sup>  
 嘉禾廣發: 蹄lie<sup>4</sup>, 兌lei<sup>6</sup>, 隊lei<sup>6</sup>, 逗lau<sup>1</sup>, 鈍lən<sup>6</sup>

4) 黃雪貞 《江永方言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3-6. 劉祥友 《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年：97-101. 王淑一 《湖南道縣仙子脚語音研究》，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7年：24-41 '同音字表'. 이상 논저에서 발췌하여 재차 정리하였다.

5) 唐伶 《永州南部土話語音研究》，北京語言大學 博士學位論文，2005年：21.

江華粟米塘: 隊lu<sup>5</sup>, 兌lu<sup>5</sup>, 代la<sup>5</sup>, 導la<sup>5</sup>, 奪lə<sup>5</sup>, 逗ləu<sup>6</sup>  
 江華寨山: 達la<sup>5</sup>, 導lo<sup>5</sup>, 盜 lo<sup>5</sup>, 待lai<sup>5</sup>, 怠lai<sup>5</sup>, 兌luei<sup>5</sup>, 逗lau<sup>6</sup>, 鄧lan<sup>6</sup>,  
 掉liu<sup>5</sup>, 調liu<sup>5</sup>  
 道縣仙子脚: 奪lə<sup>6</sup>, 調掉liə<sup>5</sup>, 突lio<sup>3</sup>, 誕lon<sup>4</sup>, 蛋lon<sup>4</sup>

또한 일부 透母와 定母字에서는 위의 江永城關방언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파찰음 [ts-](定母) 혹은 [tsʰ-](透母)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江永방언과 그 외 소수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端, 透, 定母字 성모를 [l], [n], [ts], [tsʰ] 등으로 발음하는 현상은 분명 漢語方言에서 보기 드문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江永방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필자의 견해로 볼 때 江永방언 자체의 음운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湘南土話에 속한 주변 방언(혹은 주변 소수민족 언어)과의 비교, 음운 특성이 古代漢語로부터 기원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 현재의 음운조건 분석 등을 통해 江永방언에서 나타나는 端, 透, 定 성모 특성의 형성 원인을 분석해 보고, 또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 Ⅲ. 江永방언 端, 透, 定 성모의 발전 과정

제2절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湘南土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端母(혹은 일부 知母)字 성모를 앞에 성문파열음이 동반되는 유성파열음 [ʔd]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唐伶(2005:21-22, 2012:330)에 의하면 江永松栢방언 일부 端母字와 일부 知母字 성모는 음절 앞에 성문파열음 [ʔ]가 동반되는 [ʔd]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松栢방언: 墩?diu<sup>1</sup>, 單?die<sup>1</sup>, 燈?die<sup>1</sup>, 釘?diu<sup>1</sup>, 東?die<sup>1</sup>, 冬?die<sup>1</sup>, 鈞?diə<sup>5</sup>  
 (이상 端母), 豬?diau<sup>1</sup>, 着?diə<sup>1</sup>, 中?dian<sup>1</sup>, 竹?diəu<sup>1</sup> (이상 知母)

知母字 성모가 端母字와 함께 과열음 성모로 발음되는 현상은 上古漢語에서 知, 徹, 澄 성모와 端, 透, 定 성모가 본래 하나였다는 소위 ‘古無舌上音’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江永방언을 비롯한 기타 湘南土話에서도 일부 知, 澄母字 성모를 端, 定母字 성모와 함께 [t] 혹은 [l] 혹은 [n]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湘南土話 知組성모는 일반적으로 [ts], [tsʰ], [s] 혹은 細音운모 앞에서 구개음화된 [tʃ], [tʃʰ], [ç]성모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端, 定母가 [t]로 발음되는 일반적 상황은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다.

방언지역	知, 澄	端, 定
江永城關	爹tia <sup>3</sup> , 豬liu <sup>1</sup> , 知a <sup>1</sup> , 朝吃~(吃早飯)liu <sup>1</sup> , 竹liou <sup>7</sup> (이상 知母), 着~衣liu <sup>7</sup> , 蟲lai <sup>2</sup> , 遲ta <sup>2</sup> (이상 澄母)	斗lou <sup>3</sup> , 丹luou <sup>5</sup> , 顛əŋ <sup>1</sup> , 等lai <sup>3</sup> , 澗lie <sup>7</sup> (이상 端母), 隊lie <sup>5</sup> , 兌lie <sup>5</sup> , 調音~liu <sup>5</sup> (이상 定母)
嘉禾廣發	晝lau <sup>5</sup> (이상 知母), 蟲lən <sup>4</sup> , 腸liom <sup>4</sup> , 瞻lən <sup>6</sup> (이상 澄母)	都lu <sup>1</sup> , 帶lo <sup>5</sup> , 搭ə <sup>4</sup> , 單lom <sup>1</sup> , 墩lən <sup>1</sup> , 頂in <sup>5</sup> , 隊lei <sup>6</sup> , 逗au <sup>1</sup> , 鈍lən <sup>6</sup> (이상 端母), 踮lie <sup>4</sup> , 兌lei <sup>6</sup> (이상 定母)
寧遠東路	爹tia <sup>3</sup> , 知tæ <sup>1</sup> , 啄to <sup>5</sup> (이상 知母), 腸liŋ <sup>2</sup> (이상 澄母)	馱lio <sup>5</sup> (이상 透母)
新田南鄉	晝tau <sup>5</sup> , 啄to <sup>5</sup> , 鎮tin <sup>5</sup> (이상 知母), 蟲lin <sup>2</sup> , 腸liŋ <sup>2</sup> (이상 澄母)	
江華粟米塘	蜆lə <sup>5</sup> , 知le <sup>1</sup> , 轉leŋ <sup>5</sup> (이상 知母), 蟲li <sup>2</sup> (이상 澄母)	堆lu <sup>1</sup> , 刀la <sup>1</sup> , 塊le <sup>1</sup> , 端aŋ <sup>1</sup> , 頓yi <sup>5</sup> , 等liŋ <sup>3</sup> , 隊lu <sup>5</sup> , 兌lu <sup>5</sup> , 代la <sup>5</sup> , 導la <sup>5</sup> (이상 端母), 奪lə <sup>5</sup> , 逗əu <sup>6</sup> (이상 定母)
道縣壽雁	(이상 知母) 蟲li <sup>2</sup> , 竹tu <sup>7</sup> , 着~衣tao <sup>7</sup> (이상 澄母)	堆lio <sup>1</sup> , 雕liu <sup>1</sup> , 弔liu <sup>5</sup> , 頂niu <sup>3</sup> , 釘liu <sup>3</sup> (이상 端母) 疼to <sup>6</sup> (이상 定母)
宜章赤石	豬ty <sup>1</sup> , 竹tiəu <sup>7</sup> (이상 知母), 着~衣tiəu <sup>7</sup> , 瞻tei <sup>5</sup> (이상 澄母)	
永州崗角山	長生~tio <sup>3</sup> , 腸tio <sup>5</sup> , 豬tiəu <sup>1</sup> , 中tin <sup>1</sup> (이상 知母), 丈tio <sup>3</sup> 着~衣tu <sup>7</sup> , 直di <sup>3</sup> , 苧tiəu <sup>3</sup> , 住tiəu <sup>5</sup> , 沉din <sup>2</sup> , 蟲塵din <sup>2</sup> , 澄din <sup>5</sup> (이상 澄母)	蛋lo <sup>5</sup> (이상 定母)

6) 黃雪情 《江永方言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劉祥友 《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年。沈若雲 《宜章土話研究》，湖南教育出版社，1999年。張曉勤 《寧遠平話研究》，湖南教育出版社，1999。賀凱林 《湖南道縣壽雁平話音系》，《方言》2003年 第1期。李星輝 《湖南永州崗角山土話音系》，《方言》2003年 第1期。羅昕如 《湖南藍山縣太平土話音系》，《湖南土話論叢》，湖南師範大學出版社，2004年。謝奇勇 《湖南新田南鄉土話同音字匯》，《方言》2004年 第2期。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知組성모와 端組성모가 [t] 혹은 [l] 혹은 [n] 혹은 [ʔd]로 합류되어 발음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이 지역 방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上古漢語 특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上古漢語의 특성이 中古 이후 사라졌다가 후대에 다시 각각의 개별 방언 지역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湘南土話는 湖南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방언 중 하나이지만 현재는 지역 약세방언으로 지역 간 편차도 커서 주민 간 교류는 대부분 지역 통용어인 西南官話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 방언 간의 상호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특성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힘들다. 또한 지역 통용어인 西南官話에는 知組성모와 端組성모가 합류되어 발음되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知組성모와 端組성모가 [t] 혹은 [l] 혹은 [n] 혹은 [ʔd]로 합류되어 발음되는 현상은 知組성모가 端組성모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특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江永방언을 비롯한 湘南土話의 端組성모(일부 知組성모)의 발음 [l], [n], [ʔd](江永松栢) 그리고 [ts], [tsʰ] 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음은 이들 성모 발음의 형성 원인과 발전 과정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ʔd]성모

江永松栢방언 端母와 知母의 [ʔd]성모 발음은 古代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소수민족 언어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陳忠敏(1995)에서는 甌방언, 閩방언, 粵방언 등 중국 동남방언에서 나타나는 [ʔb], [ʔd]와 같은 성모 발음은 고대 중국 동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壯侗族 언어의 基層<sup>7)</sup>언어 특성이 반영된 현

7) ‘基層’은 영어의 ‘substratum’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底層’이란 용어를 쓴다. 기층이란 본래 지리학 용어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질층을 가리킨다. 언어학에서는 이 용어를 차용해 역사상 이미 다른 언어(혹은 방언)에 의해 교체되어 없어진 언어(혹은 방언)의 흔적(주로 음가상의 특징이라든가 개별적 어휘 특징으로 나타난다)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漢語方言 중 基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던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버리고 漢語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용하는 언어(漢語)는 달라졌지만 본래의 母語 성분이 사용 언어 중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이라고 하였다. 鄭張尙芳(1995:13-17)에서도 吳方言의 예를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浙江省 麗水의 縉雲, 青田, 雲和, 慶元, 溫州의 永嘉, 文成, 台州의 仙居, 金華의 永康 등 吳方言 지역의 幫端母字 성모는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과열음 [ʔ]이 나타나는 [ʔb], [ʔd] 혹은 [b], [d]와 같은 유성과열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幫端母의 이와 같은 특수한 발음은 漢語方言 어음의 일반적 역사 변화 유형으로는 해석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에 鄭張尙芳(1995:13-17)에서는 현재의 漢語方言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아왔던 壯侗族의 언어와 관련시켜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즉 壯侗族 언어의 성모 과열음 중 雙脣音과 舌尖音은 상술한 일부 吳方言의 幫端母字 성모 발음처럼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과열음이 동반되는 유성과열음이라고 하였다. 이는 壯侗族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浙江省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幫端母字 성모의 특수한 음가는 이러한 壯侗族 언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성모의 음가는 오래 전 壯侗族 언어와 吳方言이 밀접한 접촉 과정을 거친 후 남겨진 특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吳方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모 특징은 壯侗族 언어의 영향으로 생긴 基層言語 현상이라고 하였다. 王福堂(2001:107-118)에서도 현재 남방 漢語方言 중에는 並定母 혹은 幫端母 성모를 [b, d] 혹은 [ʔb, ʔd] 혹은 [b, d]로 발음하는 방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閩방언에 속하는 海南文昌방언, 粵방언에 속하는 廣東省 化州방언, 廣西省의 玉林, 容縣, 岑溪, 藤縣, 蒼梧夏郢 등지의 방언, 吳방언에 속하는 上海 金山방언, 浙江省 永嘉蓬溪방언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방언들의 성모 특성은 분명 壯侗族 언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학자들의 이와 같은 결론은 이제 학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江永松栢방언 端母와 知母 성모의 발음 [ʔd]도 이 지역의 基層言語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고대로 漢族과 苗族, 瑤族, 侗族 등 소수민족이 함께 생활하던 지역으로 이들 소수민족 언어 중에도 역사상 [ʔb], [ʔd]와 같은 성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sup> 현재 湘南土話에는 幫(並)母字를 [ʔb]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는 없지만, [ʔb]의 변이형이라고 볼 수 있는 [m]성모는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8) 劉祥友《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年:100.



桂陽敖泉: 百mo<sup>7</sup>, 剝mau<sup>5</sup>, 孛mo<sup>7</sup>  
 嘉禾廣發: 巴ma<sup>1</sup>, 百ma<sup>5</sup>, 邊mai<sup>1</sup>, 兵mai<sup>1</sup>, 保mei<sup>3</sup>, 背mei<sup>6</sup>, 幫mən<sup>1</sup>,  
 必mie<sup>4</sup>, 分mən<sup>1</sup>  
 江華寨山: 剝mo<sup>5</sup>, 弱mi<sup>6</sup>  
 道縣壽雁: 閉ma<sup>7</sup>, 枇mi<sup>7</sup>  
 寧遠東路: 飯ma<sup>2</sup>, 梗mən<sup>5</sup>

## 2. [l]성모

江永松栢방언에서 [ʔd]성모로 발음되는 端知母字는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江永縣 내 기타 지역의 발음을 살펴보면 [ʔd] 성모는 [l]성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江永城關방언과 江永松栢방언의 端知母字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鈞	猪	墩	着	釘	竹	燈
江永松栢	ʔdiə <sup>5</sup>	ʔdiəu <sup>1</sup>	ʔdiu <sup>1</sup>	ʔdiə <sup>1</sup>	ʔdiu <sup>1</sup>	ʔdiəu <sup>1</sup>	ʔdie <sup>1</sup>
江永城關	liu <sup>6</sup>	liu <sup>1</sup>	lie <sup>1</sup>	liu <sup>7</sup>	liou <sup>5</sup>	liou <sup>7</sup>	lai <sup>1</sup>

江永松栢방언의 발음을 살펴보면 [ʔd]성모를 보유하고 있는 글자 음들은 모두 공통된 운모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두 [i]介音 앞에서 발음되고 있다([i]介音 뒤에는 대부분 [u]운미 혹은 [ə] 혹은 [ɛ]로 발음된다). 中古 陽聲韻 혹은 入聲韻 글자들의 비음운미 혹은 파열음운미는 현재 모두 탈락되었다. 江永城關방언의 발음을 보더라도 성모가 [l]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운모 조건은 江永松栢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燈’字 발음의 경우 江永城關에서는 [lai]로 발음되지만 江永夏層鋪에서는 [lie]로 발음되며, 黃雪貞(1993:3)의 기록에서는 江永松栢의 ‘燈’字 발음을 [lie]로 기록하고 있다.<sup>9)</sup> 또한 江永松栢방언 일부 來母字는 위의 예와 같

9) 江永松栢방언에서는 위의 예를 포함한 일부 端知母字에서만 [ʔd]성모가 나타나고, 그 외의 端母字는 대부분 [l] 혹은 [n]성모로 발음된다(知母字는 대부분 파(마)찰음으로 발음된다). 江永縣 내의 기타 방언지역에서도 端母字는 대부분 [l]성모로 발음된다.

은 운모 조건 하에서 [ʔd]로 발음된다(그 외에는 [l]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料?diə<sup>6</sup>, 流?diəu<sup>1</sup>, 力?diəu<sup>6</sup>, 冷?diu<sup>5</sup>, 零?diu<sup>2</sup>, 六?diəu<sup>6</sup>, 綠?diəu<sup>6</sup>. 이는 방언 화자들이 과거 端母와 來母를 같은 성모로 인식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江永방언의 [l]성모는 과거 [ʔd]성모로부터 발전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江永松栢방언의 [ʔd]성모는 특정한 운모 조건(i)介音 앞) 하에서 古代의 성모형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古代 성모의 잔존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그렇다면 江永방언을 비롯한 湘南土話 端, 定, 知, 澄母字의 성모 [l]는 全濁聲母 定, 澄母가 무성음화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일까? 아니면 무성음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일까? 필자의 견해로 볼 때 湘南土話 端, 定, 知, 澄母의 성모 [l]는 全濁聲母의 무성음화 이전에 이미 형성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l]성모가 全濁聲母의 무성음화 이후에 형성된 발음이라면 定澄母의 성모 역시 端知母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 [l]로 발음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端知母를 [l]성모로 발음하는 방언에서 定澄母는 일부 소수의 글자들만이 [l]성모로 발음된다. 따라서 端知母와 定澄母의 성모 [l]는 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시기 함께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l]로 발음되는 소수 定, 澄母字의 성모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유일한 가능성은 定, 澄母가 무성음화된 이후 후대에 개별적으로 형성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定, 澄母가 무성음화되기 이전 端, 知母와 定, 澄母는 음성적으로 서로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즉 성모가 [l]로 변화하기 이전 端, 知母와 定, 澄母는 방언 내에 基層言語의 영향을 받은 [ʔd]와 같은 성모가 존재했었다고 할지라도 漢語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하기 위해 분명 일정한 음가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定, 澄母는 [d], 端, 知母는 [ʔd]로 발음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설첨과열음을 일률적으로 [ʔd]와 같이 발음하는 壯侗族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구분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古

10) 唐伶(2012:300)에서는 端母를 [l]성모로 발음하는 현상에 대해 基層언어 현상과 무관한 공시적 어음 조건에 의한 음운변화일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江永城關방언의 경우 운모 조건과 무관하게 端母字의 대부분이 [l]성모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적 조건에 의한 음운변화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代 湘南土話 지역 방언 화자들 중에는 漢族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定, 澄母의 발음은 적어도 [ʔd]와 [d]가 자유변이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혹은 漢語 설침과열음의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기 위해 端, 知母는 이미 [l]성모로 변화되었고, 定, 澄母는 [ʔd]와 같은 발음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다. 어떤 과정이 되었든 定, 澄母의 무성음화 이전 端, 知母는 발음이 점차 약화되면서 같은 조음위치의 유음 [l]([ʔd]→[l])로 변화하였고, 定, 澄母는 후에 무성음화 되는 과정에서 무성과열음 [t]([d]([ʔd])→[t])로 변화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부 定, 澄母字가 [l]성모로 발음되는 것은 아마도 [d]와 [ʔd] 혹은 [l]와 [ʔd]의 혼용 상황에서 오는 類推나 誤讀 현상으로 인해 소수의 글자들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定, 澄母가 과열음 [t]로 변화하는 현상은 현재의 湘南土話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湘南土話 臨武城關, 宜章赤石, 桂陽敖泉, 道縣小甲 등 일부 방언지역에서는 中古 全濁聲母의 무성음화 이후 並定母(음가가 과열음인 奉澄母)만을 무기음으로 발음하고, 기타 全濁聲母는 유기음으로 발음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爬 <sub>並</sub>	田 <sub>定</sub>	匠 <sub>從</sub>	袖 <sub>邪</sub>	苧 <sub>澄</sub>	床 <sub>崇</sub>	柜 <sub>群</sub>	乘 <sub>船</sub>	酬 <sub>禪</sub>
臨武	po <sup>2</sup>	tī <sup>2</sup>	tchian <sup>5</sup>	te'iou <sup>5</sup>	te'y <sup>3</sup>	ts'uan <sup>2</sup>	k'y <sup>5</sup>	ts'en <sup>5</sup>	te'iou <sup>2</sup>
宜章	pye <sup>2</sup>	tie <sup>2</sup>	te'ian <sup>5</sup>	tei <sup>5</sup>	te'y <sup>3</sup>	ts'an <sup>2</sup>	k'ueil	te'in <sup>5</sup>	ts'əw <sup>5</sup>
桂陽	po <sup>2</sup> <sub>婆</sub>	tie <sup>2</sup>	ts'o <sup>3</sup> <sub>坐</sub>	tsiou <sup>6</sup>	tj'y <sup>3</sup>	ts'o <sup>2</sup>	k'uei <sup>6</sup>	tj'in <sup>2</sup>	t'ou <sup>2</sup>
道縣	pu <sup>2</sup>	tən <sup>2</sup>	te'ioŋ <sup>6</sup>	eiw <sup>6</sup>	ts'o <sup>4</sup>	ts'o <sup>2</sup> <sub>勸</sub>	k'ua <sup>6</sup>	ts'uan <sup>2</sup> <sub>船</sub>	

이러한 변화는 분명 일반적인 漢語方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수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漢語 성모의 역사적 변천은 일반적으로 성조 혹은 운모 혹은 성모의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이처럼 성모의 조음위치(혹은 조음방법)에 따라 발음(유기음과 무기음)이 변화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吳, 閩 粵 등 남방 漢語方言 중에는 並定母 혹은 幫端母를 [b, d] 혹은 [ʔb, ʔd] 혹은 [b, d]로 발음하고 그 외 성모는 무성음 혹은 이와 다르게 발음하는 방언이 존재한다. 王福堂(2001:107-118)에서는 이러한 漢語方言들의 성모 특성은 고래로 중국 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壯侗族 언어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면서, 壯侗族 언어 혹은 소수 漢語方言 중에 나타나는 [b, d], [ʔb, ʔd] 등 성모는 발음의 도입 부분에 살짝 숨을 들여 마시는 동작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발음이 무성음화된다면 발음 앞 부분에 숨을 들여 마시는 동작 때문에 유기음이 아닌 무기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위에서 나열한 일부 湘南土話에서 나타나는 특성도 같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並定母만이 무성 무기음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은 성모특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江永方言을 비롯한 일부 湘南土話에서는 [l]로 변화한 端, 知母와 달리 定, 澄母는 [t]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端, 知母의 경우 定, 澄母가 무성음화되기 이전 弱化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l]로 변화하였지만, 定, 澄母는 그 후에도 성모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d] 혹은 [ʔd]와 같은 발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무성음화 과정에서 定, 澄母는 [t]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로 현재 江永방언 등의 端母[l]-定母[t]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n]성모

그렇다면 일부 端知母字의 [n]성모 발음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우선 이 지역 통용어인 西南官話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西南官話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中古 泥母와 來母를 구분 없이 [l] 혹은 [n]성모로 발음한다. 湘南土話의 분포지역에서 사용되는 西南官話도 마찬가지이다.<sup>11)</sup> 그런데 湘南土話에서는 일반적으로 [n]와 [l]가 확연히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 통용어인 西南官話의 영향으로 端母字의 일부 성모가 [n]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西南官話 [n], [l]성모의 혼용 현상은 泥來母字에 국한된 현상이지 端母字의 발음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端母字의 [n]성모 발음은 西南官話와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湘南土話 端母字의 [n]와 [l]성모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각각의 발음이 일정한 음운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曾獻飛 《湘南官話語音研究》，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4年：48-50. 李霞 《西南官話語音研究》，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4年：6-7.

江永城關방언, 松栢방언의 경우 현재 鼻音韻尾를 보유하고 있는 陽聲韻 글자는 대부분 [n]성모로 발음되고, 그 외는 [l]성모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松栢: 低lei<sup>1</sup>, 帶la<sup>5</sup>, 點nəŋ<sup>3</sup>, 擔naŋ<sup>1</sup>, 膽lu<sup>3</sup>, 單lie<sup>1</sup>, 端naŋ<sup>1</sup>, 黨naŋ<sup>3</sup>,  
丁liu<sup>1</sup>, 頂nəŋ<sup>3</sup>, 燈lie<sup>1</sup>, 東lie<sup>1</sup>.  
江永城關: 都lu<sup>1</sup>, 斗lou<sup>3</sup>, 點nəŋ<sup>3</sup>, 典nəŋ<sup>3</sup>, 襠naŋ<sup>1</sup>, 丹luow<sup>1</sup>, 頓lie<sup>5</sup>, 等lai<sup>3</sup>,  
略liou<sup>6</sup>, 滴lie<sup>7</sup>, 冬lai<sup>1</sup>, 答lu<sup>7</sup>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唐伶(2012:331), 謝奇勇(2003:132-133) 등에서는 端母字가 [n]성모로 발음되는 것은 鼻音韻尾의 영향으로 [l]가 [n]로 변화한 일종의 同化 혹은 感染작용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n]성모로 발음되는 湘南土話 端母字는 일부 방언지역에서 鼻音韻尾가 없는 경우에도 [n]성모로 발음된다. 그리고 [n]성모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中古 陽聲韻 글자들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桃川: 短naŋ<sup>3</sup>, 點nəŋ<sup>3</sup>, 答lo<sup>7</sup>, 單no<sup>1</sup>, 丁nie<sup>1</sup>, 凍nuw<sup>5</sup>, 燈ny<sup>1</sup>  
江永桃用: 短naŋ<sup>3</sup>, 點nəŋ<sup>3</sup>, 擔nuo<sup>3</sup>, 膽nuo<sup>3</sup>, 單nuo<sup>1</sup>, 凍nuw<sup>5</sup>

中古 陽聲韻은 본래 [-m], [-n], [-ŋ]의 비음운미를 가지고 있던 운모이지만 현재 湘南土話에서는 鼻音韻尾가 白讀 층에서 대부분 소실되었고, 文讀 층에만 남아있다(白讀 층에도 일부 韻攝에서는 [-ŋ]운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sup>12)</sup> 江永城關방언과 주변의 宜章赤石, 寧遠東路, 道縣小甲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江永城關: 喊huow<sup>5</sup>, 檢teŋ<sup>3</sup>/te<sup>3</sup>, 蠻maŋ<sup>2</sup>/muow<sup>2</sup>, 憐lai<sup>2</sup>, 心sai<sup>1</sup>, 思ai<sup>1</sup>,  
珍cie<sup>1</sup>, 廊laŋ<sup>2</sup>/luow<sup>2</sup>, 朋pai<sup>2</sup>, 升cie<sup>1</sup>, 箏tsai<sup>1</sup>, 萍pai<sup>2</sup>, 送sai<sup>5</sup>, 供

12) 文讀 층에서는 대부분의 韻攝에서 비음운미를 보유하고 있는데 [-ŋ]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n], [-ŋ]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湘南土話의 鼻音韻尾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湘南土話 鼻音韻尾 고찰〉(《中語中文學》, 2015年 第60輯)에서 논의한 바 있다.

- tɕie<sup>5</sup>, 泳ə<sup>6</sup>, 款k'ai<sup>3</sup>, 萬uou<sup>6</sup>, 混fai<sup>4</sup>, 純eyə<sup>2</sup>, 往ioŋ<sup>4</sup>/uou<sup>4</sup>.  
 宜章赤石: 籃lan<sup>5</sup>文/lo<sup>2</sup>白, 欠tɕie<sup>5</sup>, 板pan<sup>3</sup>文 / po<sup>3</sup>白, 聯lin<sup>5</sup>文/lie<sup>2</sup>白,  
 金tɕin<sup>1</sup>文 / kei<sup>1</sup>白, 跟kei<sup>1</sup>, 眞tsei<sup>1</sup>, 窗ts'aŋ<sup>1</sup>文 / ts'o<sup>1</sup>白, 肯k'an<sup>3</sup>文/  
 tɕie<sup>3</sup>白, 興ein<sup>7</sup>文 / hei<sup>5</sup>白, 行cin<sup>5</sup>文/eie<sup>2</sup>白, 整tsən<sup>3</sup>文/tsei<sup>3</sup>白,  
 送səu<sup>5</sup>, 恭koŋ<sup>1</sup>文/kəu<sup>1</sup>白, 傾t'in<sup>7</sup>/tɕye<sup>2</sup>, 權tɕyn<sup>5</sup>文/tɕye<sup>2</sup>白,  
 棍kuei<sup>5</sup>, 春tɕyn<sup>1</sup>文/ts'ei<sup>1</sup>白  
 寧遠東路: 藍lo<sup>2</sup>, 單təŋ<sup>1</sup>文/tie<sup>1</sup>白, 濺tso<sup>5</sup>, 林lio<sup>2</sup>, 跟kaŋ<sup>1</sup>/ke<sup>1</sup>, 貧p'io<sup>2</sup>,  
 幫p'aŋ<sup>5</sup>/pie<sup>1</sup>, 爽cio<sup>5</sup>, 証tso<sup>5</sup>, 生cie<sup>1</sup>, 名mio<sup>2</sup>, 關kue<sup>1</sup>, 橫xe<sup>2</sup>,  
 方fəŋ<sup>1</sup>/fie<sup>3</sup>.  
 道縣小甲: 淡tu<sup>4</sup>, 邊pən<sup>1</sup> / pie<sup>1</sup>, 心cie<sup>1</sup>, 根kie<sup>1</sup>, 眞tɕie<sup>1</sup>, 巷eyə<sup>6</sup>, 軟nye<sup>3</sup>,  
 朋pie<sup>2</sup>, 興cie<sup>5</sup>, 硬ŋən<sup>6</sup>/ŋie<sup>5</sup>, 京tɕiu<sup>1</sup>, 送cie<sup>5</sup>, 封fie<sup>1</sup>, 永iəu<sup>3</sup>,  
 本pie<sup>3</sup>, 順eyə<sup>3</sup>.

이와 같은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湘南土話 端母字的 [n]성모 발음은 분명 鼻音韻尾의 同化작용에 의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그 형성 시기는 湘南土話의 鼻音韻尾가 소실되기 이전에 이미 [n]성모로의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浙江省 永康방언(吳방언) 幫, 端母字 성모는 각각 [p], [t]로 발음하는데, 鼻音韻尾를 동반하는 경우는 각각 [m], [n]로 발음된다고 한다.<sup>13)</sup> 이는 湘南土話와 동일한 조건의 同化현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浙江省 武義방언, 縉雲방언(吳방언) 端母字 역시 陽聲韻 앞에서 [n]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幫母字를 [m]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sup>14)</sup>

- 浙江 武義(吳方言) 店nie, 釘niŋ, 釣lie, 帶lia  
 浙江 縉雲(吳方言) 釘neiq, 凍nom, 餅meiq

이와 같은 현상은 壯侗族 언어에서도 볼 수 있다. 壯侗族 언어에 속하는 傣語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13) 袁家驊 等《漢語方言概要》(第二版), 語文出版社, 2001年:80.

14) 羅昕如《湘南土話詞匯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年:243. 王本瑛《湘南土話之比較研究》, (台灣)國立清華大學博士論文, 1997年:51.

15) 羅昕如《湘南土話詞匯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年:243.

飛 村寨 叶子 鼻子 得 罵  
 傩西 ?bin<sup>1</sup> ?ba:n<sup>3</sup> ?bai<sup>1</sup> ?daŋ<sup>1</sup> ?dai<sup>3</sup> ?da<sup>5</sup>  
 傩得 men<sup>6</sup> ma:n<sup>3</sup> mau<sup>6</sup> laŋ<sup>6</sup> lai<sup>3</sup> la<sup>5</sup>

鄭張尙芳(2001)에 의하면 壯侗族 언어에서 [ʔb], [ʔd]가 [m], [n](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l])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壯族언어 중 漢語의 '村寨'와 '得'에 해당되는 단어를 龍州에서는 각각 [ʔbaan<sup>3</sup>]과 [ʔdai<sup>3</sup>]로 발음하는데, 天等에서는 [maan<sup>3</sup>]과 [nai<sup>3</sup>]로 발음하고, 德宏에서는 [maan<sup>3</sup>]과 [lai<sup>3</sup>]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壯侗族 언어에서 나타나는 파열음의 비(유)음화 현상은 [ʔb], [ʔd] 등과 같이 앞에 성문파열음을 동반한 舌尖 혹은 兩脣 유성 파열음이 점차 약화되면서 같은 조음위치의 공명음(sonorant) [l] 혹은 [n] 혹은 [m]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漢語方言(永康, 武義, 縉云 등 吳방언)에서 나타난 端母字 성모의 비음화 현상은 壯侗族 언어 특성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모 [ʔd]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음절 내 비음운미 발음의 영향으로 점차 [n]성모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湘南土話 端母字 성모의 비음화 현상도 같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江永銅山嶺 등 일부 방언지역 山, 宕, 梗 등 일부 韻攝의 陽聲韻에서는 현재 鼻音韻尾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는 여전히 대부분 [l]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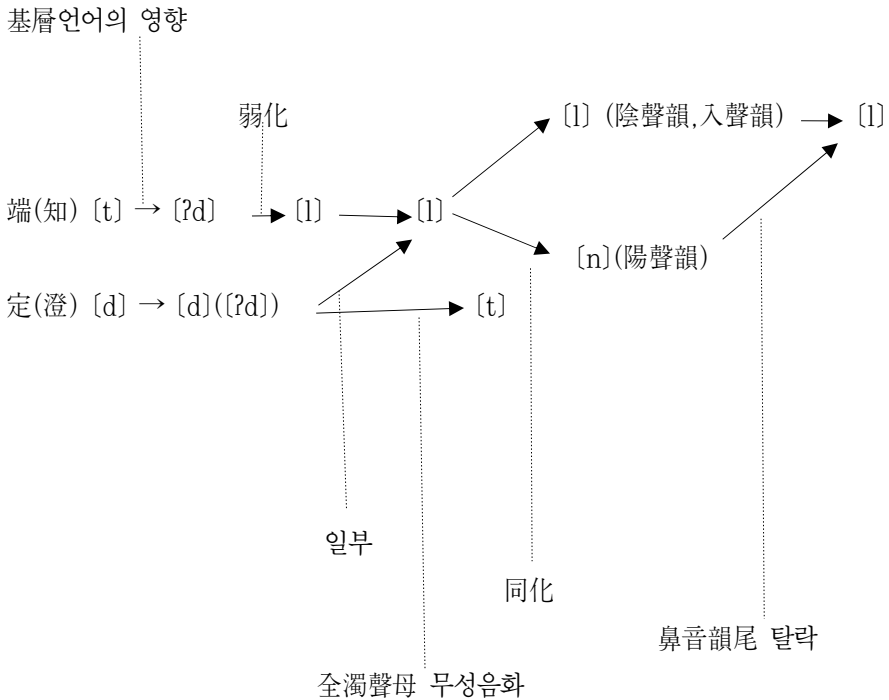
江永銅山嶺: 單la<sup>1</sup>, 典nəŋ<sup>3</sup>, 短laŋ<sup>3</sup>, 當la<sup>1</sup>/laŋ<sup>1</sup>, 黨laŋ<sup>3</sup>, 釘liŋ<sup>1</sup>, 鼎liŋ<sup>3</sup>

이와 같은 현상은 唐伶(2012:332)에서도 밝히고 있고, 또 예 중 '當'字의 발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鼻音韻尾 [-ŋ]을 포함한 운모 [-aŋ]은 후대에 湘南土話로 유입된 文讀 성분이다. 즉 鼻音韻尾를 가지고 있는 운모 [-aŋ]은 방언 고유의(혹은 文讀 이전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白讀 운모와 교체된 성분이다(江永銅山嶺방언에서 山, 宕, 梗攝을 제외한 기타 陽聲韻의 鼻音韻尾는 대부분 탈락되었다). 그렇다면 江永銅山嶺방언 山, 宕, 梗攝 陽聲韻의 성모 [l]는 鼻音韻尾 앞에서 변화

16) 唐伶 〈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 《語言科學》第11卷 第3期, 2012年:<sup>331-332</sup>.

하지 않고 여전히 [l]성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鼻音韻尾의 유입 이전부터) [l]성모로 발음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江永방언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의 湘南土話 端母는 [ʔd]에서 [l]성모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陽聲韻 운모 앞에서는 [n]로, 陰聲韻과 入聲韻 앞에서는 그대로 [l]성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지만, 후에 陽聲韻의 鼻音韻尾가 점차 탈락되면서 陽聲韻 앞에서 발음되던 [n]성모도 점차 [l]성모로 합류되어갔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江永방언 端, 定母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 4. [tsʰ] 혹은 [ts] 성모

제2절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江永城關방언 端組字의 파찰음 성모 [tsʰ] 혹은



[ts]는 透母와 定母에서만 나타나고, 端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端母가 [l](혹은 [n])로 변화한 시기와 透, 定母가 과찰음으로 변화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透, 定母의 과찰음화는 端母가 [l](혹은 [n])로 변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透, 定母가 과찰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모두 운모 조건이 細音(江永방언의 경우는 齊齒呼)인 경우인데, 端母는 운모 조건과 상관없이 대부분 [l]성모로 발음된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江永城關방언 端母의 [l]성모와 透, 定母의 [ts]([ts'])성모는 같은 시기 함께 변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端母와 透定母가 달리 변화하는 이유는 분명 古代 江永방언 端母의 발음이 透, 定母와 달리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과열음을 동반한 [ʔd] 혹은 여기에서 발전된 [l](n)와 같은 발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주변 일부 방언지역에서는 端母도 透, 定母와 마찬가지로 細音운모 앞에서 과찰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7)</sup>

	端	透	定
雙牌打鼓坪	墩tɕye <sup>1</sup> , 釘iu <sup>1</sup>	退t'ye <sup>5</sup> , 聽t'ieu <sup>5</sup>	隊tɕye <sup>6</sup> , 定tɕiu <sup>6</sup>
江永瀟浦	墩die <sup>1</sup> , 釘liŋ <sup>1</sup>	退tsie <sup>5</sup> , 聽ts'ion <sup>5</sup>	隊tsion <sup>6</sup> , 笛tsie <sup>6</sup>

하지만 端母가 과찰음으로 발음되는 방언 지역에서 端母가 [l](혹은 [n])성모로 발음되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방언지역 端, 透, 定母는 비슷한 시기(아마도 全濁聲母의 무성음화 이후) 같은 운모조건하에서 함께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이들 지역 端母의 발음은 江永방언에서와 같이 성문과열음을 동반한 유성과열음이 아니고, 透, 定母와 공통된 성격을 지닌 무성과열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성격을 지닌 성모라야만 같은 운모 조건하에서 함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湘南土話 이외에도 甯방언이나 贛방언, 桂北平話의 일부 지역에서도 端, 透, 定母를 과찰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방언지역에서도 端組

17) 唐伶 〈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 《語言科學》第11卷 第3期, 2012年:333.

성모가 파찰음으로 발음되는 음운조건은 모두 細音 운모 앞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端	透	定
甌방언	浙江溫州	ㄱ <sup>3</sup> kyə <sup>1</sup> , ㄱ <sup>3</sup> kie <sup>3</sup>	天 <sup>1</sup> kie <sup>1</sup>	頭 <sup>2</sup> dziu <sup>2</sup>
贛방언	湖北陽新	釣 <sup>5</sup> tsio <sup>5</sup>	添 <sup>1</sup> tsie <sup>1</sup> , 聽 <sup>1</sup> tsie <sup>1</sup>	田 <sup>2</sup> tsie <sup>2</sup>
桂北平話	廣西富川		聽 <sup>5</sup> kie <sup>5</sup> , 跳 <sup>5</sup> kie <sup>5</sup>	亭 <sup>2</sup> kie <sup>2</sup> , 條 <sup>2</sup> kie <sup>2</sup> , 定 <sup>2</sup> kie <sup>2</sup> , 笛 <sup>1</sup> kyu <sup>1</sup>

#### IV. 맺는 말

江永방언 端組(知組)성모의 [l], [n], [ts], [ts'] 등의 발음은 基層言語의 영향, 上古漢語 특성의 잔류, 全濁聲母 무성음화 이전의 全清聲母와 全濁聲母의 변별작용, 鼻音韻尾의 탈락 그리고 同化, 弱화, 운모특성에 기인한 성모의 변화 등 다양한 음운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江永방언의 端母(파열음으로 발음되는 일부 知母)는 上古 이래 基層言語의 영향으로 발음 앞에 성문파열음을 동반한 [ʔd]와 같은 발음으로 변화한 후 다시 弱화 과정을 거쳐 같은 조음위치의 공명음 [l]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端(知)母의 [l] 성모화는 또한 定母가 무성음화되기 이전 定母와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定母는 무성음화 이전 [d] 혹은 [ʔd] 등으로 발음되다가 무성음화 과정에서 [t]로 변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端母의 [l]성모는 다시 陽聲韻 鼻音韻尾 음절에서 鼻音韻尾의 同化작용으로 [n]성모로 변화한다. 즉 端母는 [l]성모(陰聲韻, 入聲韻 운모 앞)와 [n]성모(陽聲韻 운모 앞)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후에 鼻音韻尾가 탈락되면서 일부 鼻音韻尾를 보유한 음절을 제외하고 端(知)母의 [n]성모는 대부분 [l]성모로 합류된다. 그리고 定母(파열음으로 발음되는 일부 澄母)字

18) 傅佐之, 黃敬旺 〈溫州方言端透定三母的齟化現象〉, 《方言》1980年 第4期: 263-266. 鄧玉榮 〈廣西富川方言的分布及差異〉, 湘南土話及周邊方言國際學術研討會, 2002年. 唐伶 〈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 《語言科學》第11卷 第3期, 2012年:334.

중에는 端(知)母의 이와 같은 변화 과정 속에서 端(知)母를 따라 발음하는 類推 혹은 誤讀 현상이 나타나 일부 글자를 [l] 혹은 [n]성모로 발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江永방언에서는 일부 透, 定母를 파찰음 [ts'], [ts]로 발음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는 端母가 [l](혹은 [n])로 변화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며, 細音 운모 앞에서 일부 무성 파열음의 파찰음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參考文獻】

- 鮑厚星《東安土話研究》，湖南教育出版社，1998年.
- 鮑厚星等《湘南土話論叢》，湖南師範大學出版社，2004年.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漢語方音字彙》，文字改革出版社，2003年.
- 曹志耘《南部吳語語音研究》，商務印書館，2002年.
- 陳忠敏〈作爲百越語底層形式的先喉塞音對比研究〉，《民族語文》1995年 第3期.
- 戴慶廈《漢語與少數民族語言關係概論》，中央民族學院出版社，1992年.
- 鄧玉榮〈广西富川方言的分布及差異〉，湘南土話及周邊方言國際學術研討會，2002年.
- 範峻軍〈湖南桂陽縣敖泉土話同音字彙〉，《方言》2000年 第1期.
- 傅佐之，黃敬旺〈溫州方言端透定三母的齶化現象〉，《方言》1980年 第4期.
- 賀凱林〈湖南道縣壽雁平話音系〉，《方言》2003年 第1期.
- 黃雪情《江永方言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 李冬香〈平話，湘南土話和粵北土話鼻音韻尾脫落現象考察〉，廣西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2期，2005年.
- 李永明《臨武方言-土話與官話的比較研究》，湖南人民出版社，1988年.
- 李霞《西南官話語音研究》，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4年.
- 李星輝〈湖南永州崗角山土話音系〉，《方言》2003年 第1期.
- 林燾，王理嘉《語音學教程》，北京大學出版社，1992年.
- 劉新中《海南閩語的語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年.
- 劉祥友《湘南土話語音的歷史層次》，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8年.
- 羅昕如〈湖南藍山縣太平土話音系〉，《湖南土話論叢》，湖南師範大學出版社，2004年.
- \_\_\_\_\_《湘南土話詞匯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年.
- \_\_\_\_\_〈湘南土話中的底層語言現象〉，《民族語文》2004年 第1期.
- 牟廷烈〈漢語方言 中的 어음 層 분석방법에 관한 고찰〉，《中國語文學誌》제29집,

2009년 4월.

- 潘悟云《漢語歷史音韻學》，上海教育出版社，2000年。
- 冉啓斌〈漢語鼻音韻尾的消變及相關問題〉，《漢語史研究集刊》第8輯，四川大學漢語史研究所編，巴蜀書社，2005年。
- 沈若雲《宜章土話研究》，湖南教育出版社，1999年。
- 沈鐘偉〈語言轉換和方言底層〉，《歷史層次与方言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7年。
- 唐伶《永州南部土話語音研究》，北京語言大學 博士學位論文，2005年。
- \_\_\_\_\_〈湘南土話古端母的讀音〉，《語言科學》第11卷 第3期，2012年。
- 王本瑛《湘南土話之比較研究》，(台灣)國立清華大學博士論文，1997年。
- 王福堂〈平話，湘南土話和粵北土話的歸屬〉，《方言》2001年 第2期。
- \_\_\_\_\_《漢語方言語音的演變和層次》，語文出版社，1999年。
- 王輔世《苗語簡志》，民族出版社，1985年。
- 王淑一《湖南道縣仙子脚語音研究》，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07年：24-41 '同音字表'。
- 謝奇勇〈湖南新田南鄉土話同音字匯〉，《方言》2004年 第2期。
- 徐通鏞《歷史言語學》，商務印書館，1996年。
- 嚴學群《民族研究文集》，民族出版社，1997年。
- 游俊，李漢林《湖南少數民族史》，民族出版社，2001年。
- 張琨〈漢語方言中鼻音韻尾的消失〉，《中國語文叢刊》，1983年。
- 張曉勤《寧遠平話研究》，湖南教育出版社，1999。
- 張偉然《湖南歷史文化地理研究》，夏旦大學出版社，1995年。
- 鄭張尚方《吳語和閩語的比較研究》，上海教育出版社，1995年。
- 鄭張尚方〈漢語方言聲韻調異常語音現象的歷史解釋〉，《語言》第2卷，2001年。
- 中國社會科學院，澳大利亞人文科學院《中國語言地圖集》，香港郎文出版有限公司，1988年，中國少數民族語言分布圖A4。
- 曾獻飛《湘南官話語音研究》，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2004年。
- 周先義〈湖南道縣(小甲)土話同音字彙〉，《方言》1994年 第3期。

## 【中文提要】

江永方言端組(知組)聲母的讀音[l]，[n]，[ts]，[tsʰ]等是底層語言的影響、上古漢語特點的遺留、全濁聲母清化以前的全清與全濁聲母的辨別作用、

鼻音韵尾的脱落、同化、弱化等共时音韵条件引起的变化等多种因素共同起作用的结果。江永部分地区端母的读音[ʔd]在分布特点上与[l]有密切的关系。这种先喉塞音声母可认为是古代少数民族语言底层残留现象。端(知)母的[l]声母很可能是从[ʔd]演变(弱化)而来的。且这种演变也起了在定(澄)母清化之前与定母辨别音值的作用。后来[l]声母在阳声韵鼻音韵母前被同化为[n]声母,但随着湘南土话鼻音韵尾的脱落演变逐渐又合流为[l]声母。江永方言中还有透、定母读塞擦音[tsʰ]、[ts]的现象。端母中没有这种现象。所以这可认为是后起的(端母演变成[l]或[n]以后)创新音变。今读韵母条件为细音(齐齿呼)。

### 【主題語】

江永방언, 端透定母, 기층언어, 전탁성모, 비음운미 탈락, 동화, 약화, 湘南土話  
江永方言, 端透定母, 底层语言, 全浊声母, 鼻音韵尾脱落, 同化, 弱化, 湘南土话  
JiangYong dialect, Duan-Tou-Ding-mu, substratum, MC Voiced Initials,  
loss of nasal ending, assimilation, weakening, Local Dialects of Southern  
Hunan

투고일: 2016. 1. 15 / 심사일: 2016. 1. 20~2. 5 / 게재확정일: 2016. 2. 15